

### 소아에 있어서 HBs 항원혈증과 동반된 막성신질환

서울의대 소아과

최 용 · 윤희상 · 김종윤

정해일 · 고광욱

병리과

김 용 일

저자들은 1977년 2월부터 1984년 2월까지 서울대학 교병원 소아과에 입원하여 신생검으로 확진된 HBsAg 혈증을 동반하고 있는 막성신질환(19예)을 대상으로 임상적, 병리학적 소견을 분석하여 그 특성을 규명하여 보고자 하였다. 결과를 보면

1) 평균 발병연령은 5년 7개월이었으며, 남녀비는 17:2로 남아에서 현저히 많았다.

2) HBsAg 뿐 아니라 HBeAg도 시행된 14예 모두에서 양상을 나타내었다.

3) 발병시의 양상을 보면 부종 12예, 부종과 육안 적혈뇨 7예였다.

4) 혈청 GOT와 GPT는 9예에서 대부분 정도의 상승을 보였으며 최고치는 각각 104, 67 units/dl이었다. 혈청 C<sub>3</sub>는 2예에서만 저하되어 있었고, 소변 단백/Cr 비는 17예에서 1.0이상으로 심한 단백뇨를 나타내었다.

5) 병리소견을 보면 ① 8예에서 stage II, 2예에서 stage II~III, 5예에서 stage III, 1예에서 stage III~IV, 2예에서 stage IV였으며 발병시부터 신생검까지의 기간과 stage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었으며 ② 광학현미경상 5예에서 세포의 증식을 함께 보였으나 14예에서는 전형적인 막성신질환의 소견을 보였다. ③ 전자현미경소견(15예)에선 4예에서만 subepithelial deposit를 함유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11예에선 다른 부위에도 deposit가 관찰되었다. ④ IF(14예)에선 IgG와 C<sub>3</sub>는 전예에서 강하게 IgA는 1예, IgM은 5예에서만 granular하게 관찰할 수 있었으며, mesangium에는 1예만이 IgM과 C<sub>3</sub>가 관찰되었는데 이 경우 현저한 세포의 증식을 보이고 있었다. HBsAg은 시행된 3예 모두에서 음성이었다.

6) Prednisolone을 사용한 10예중 5예, 사용하지 않은 9예중 4예에서 경과중 완해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19예중 1예에서 발병후 4년 3개월만에 신부전으로 사

망하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서 B형간염 virus와 관련된 막성신질환은 (1) eAg의 존재와 관련이 깊다고 믿어지며 (2) 일차성막성신질환과 달리 subepithelial 뿐 아니라 다른 부위에서도 deposit가 관찰되며 (3) 스테로이드를 투여한 경우와 투여치 않은 경우간에 임상반응에 차이가 없으므로 소아에서도 소아신증후군의 치료시 최소한 혈청 B형 간염 항원검사후 양성인 경우 신생검을 시행한 후 투여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믿어진다.

### 소아에서의 막증식성 사구체 신염에 대한 임상 병리적 관찰

—원발성과 HBsAg(+)막증식성 사구체 신염—

서울의대 소아과

윤희상 · 정해일 · 최 용 · 고광욱

병리학과

김 용 일

1971년 Combes 등이 HBsAg과 연관된 신질환을 발표한 이래 막양 신염과 막증식성 신염등의 다양한 신병변이 발표되었다.

소아연령에서의 막증식성 신염은 흔하지 않은 질병인데 1975년과 1984년 3월사이에 서울대학교병원 소아과에서 시행된 경피 신생검은 385예였으며 이중 막증식성 사구체 신염으로 확진된 예는 17이었다. 4예에서 HBsAg이 양성이었다. 4예중 1예는 입원관찰중 음성으로 되었다. 나머지 3예중 1예는 만성 활동성 간염이 동반되었고 1예는 신증후군에 급성 신부전이 겹쳐 있었다.

원발성 막증식성 사구체 신염과 3예의 HBsAg(+) 막증식성 사구체 신염간에 통계학적 의미는 없으나 임상 병리학적인 측면에서 비교 관찰하였다.

원발성인 경우 여자가 62%로 많은데 비해 HBsAg(+)인 경우는 여자가 33%였다. 입원당시에 원발성인 경우 신증이 54%, 신증—신염이 31%, 만성 신부전이 7.5%, 급성 신염이 7.5%였고 HBsAg(+)인 경우는 신증이 67%, 신증—신염이 33%였다. 전자에서는 이완기혈압이 90 mmHg 이상이 69%에서 관찰되었는데 후자에서는 ATN이 있었던 환아를 제외하고는 정상이었다. 혈청 알부민의 평균치는 약 2.3 gm%로 둘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고콜레스테롤 혈증(>350 mg%)은

전자에서는 50%에서 관찰되었고 후자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24시간 소변단백은 전자는 평균 3.3 gm, 후자는 2.0 gm이었다. Selectivity Index는 전자의 경우 평균 0.445, 후자의 경우 1명에서 측정되었는데 0.218이었다. 혈청 Cr이 1.2 mg% 이상과 Ccr이 60 ml/min/1.73 m<sup>2</sup> 이하가 전자에서는 각각 54%, 62%였고 후자는 ATN이 있었던 환아를 제외하고는 정상이었다. C<sub>3</sub>감소는 전자에서는 69%, 후자에서는 33%에서 관찰되었다. 마지막 추적 관찰당시 전자에서는 사망이 15%, 만성 신부전이 31%였고 후자에서는 ATN이 있었던 환아가 만성 신부전에 빠진 예를 제외하고는 신기능은 정상이었다.

HBsAg만 양성이었던 환아는 EM에서 내피하 침착만 발견되었으나 HBEAg도 양성이었던 환아와 CAH가 있었던 환아에서는 상피하 침착도 발견되었다.

— 5 —

### 간염 B 표면항원이 양성인 사구체신염 환자에서의 임상-병리학적 소견의 상관관계

서울의대 내과  
안규리·김성권·이정삼

병 리 과  
김 용 일

1971년 Coombs 등은 B형 간염바이러스가 사구체신염을 일으킨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그후 10여년동안 B형 바이러스에 의한 사구체신염의 병리적 소견 및 임상상에 대한 산발적인 보고가 있어 왔으며, 발생기전에 대하여는 면역복합체에 의한 2차성 병변임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B형 바이러스에 의한 사구체신염의 빈도는 물론, 임상소견과 병리조직소견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는 아직 검토된 바 없다.

B형 바이러스 항원중 어떤 항원이 사구체신염을 일으키는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으나 B표면항원의 면역복합체가 여러 신질환에서 증명되었고, 사구체 내에서도 직접면역형광법으로 확인되어, 이 항원이 사구체신염의 발생기전에 관여될 것으로 간주되고,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B표면항원의 양성율이 10%에 달하는 지역에서는 B표면항원은 상당수의 사구체 질환의 원인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연자들은 B표면항원에 의한 사구체신염의 양상과 임상-병리조직학적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1979

년 1월부터 1984년 3월 사이에 서울대학교병원 내과에 입원하여 신생검을 시행하였던 환자중 B표면항원이 양성이었던 89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임상상, 면역형광학적 검사를 포함한 검사소견과 병리조직학적 소견을 비교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B표면항원은 RIA로 측정하였고, 신조직의 LM, IF, EM검사를 시행한 결과 다양한 병리조직소견을 얻어서 일관된 분류를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연자들의 분류를 사용하였다.

이 분류에 의하면(class I) 미소변화형 9예(II<sub>a</sub>), 비중식성 mesangial expansion 14예(II<sub>b</sub>), 미만성 mesangium 증식형 10예(III<sub>a</sub>), 초점성 6예(III<sub>b</sub>), 초점 증식성 6예(IV<sub>a</sub>), 비중식성 막피부 및 subendothelial 침착형 13예(IV<sub>b</sub>), 막중식성 9예 및 (V) 막성 17예 기타 5예이었다.

이 분류에 따른 임상상, 각종 면역 parameter, 신, 간기능 검사와 노검사 성적을 관찰하였다.

— 6 —

### 肝炎 B 表面抗原 陽性인 患者의 腎臟 및 肝臟 組織所見과 臨床狀에 關한 研究

서울醫大 內科

李勳鎔·金聖權·李正相

病 理 科

金 勇 一

B형간염바이러스와 腎疾患과의 관계는 1971년 Coombs 등이 최초로 보고한 이래 많은 보고가 되어 왔다. 특히 韓國에서는 HBsAg 양성율이 10%에 이르고 있어 다른 나라보다도 HBV 감염이 腎疾患의 樣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思料된다.

이에 演者들은 1976년 1월에서 1984년 3월 사이에 本院에서 HBsAg 양성이면서 腎 및 肝生檢이 모두 시행되었던 34例를 分析하여 다음과 같은 成績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1) 34명중 남자가 28명, 여자가 6명이었으며, 光學顯微鏡所見狀 membranous nephropathy(MN)가 12명(35%), membranoproliferative glomerulonephritis(MPGN)가 11명(32%), chronic sclerosing glomerulonephritis(CSGN)가 4명(12%), mesangial proliferative glomerulonephritis(MeGN)가 3명(9%), minor change(MC)가 3명(9%), focal glomerulosclerosis